

인지행동적 요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의 관계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인지행동적 요인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부정적 부부생활 사건이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부부신념 불일치 변인의 중재역할과 부정적 부부지각 변인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으며 중재 효과와 매개 효과를 포함한 전 모델을 구조 방정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13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행동적 요인 측정도구와 부부 불만족 척도를 실시하고 얻어진 자료를 상관분석, 회귀분석 및 구조 방정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지행동적 요인들과 부부 불만족도와의 상관 조사에서 주요 부부 생활사건, 부부신념 불일치, 부정적 부부지각, 부정적 부부감정, 부정적 부부행동 변인 모두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에서 부부신념 불일치 요인의 유의미한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부부지각은 양 변인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전체 모델을 검증한 결과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부정적 부부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부부지각이 이 두 변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를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매개모델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합당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제안된 인지행동적 모델은 한국 부부들에게 존재하는 부부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신념 불일치, 부정적 부부지각, 부정적 부부정서, 부정적 부부행동, 부부 불만족, 인지행동적 모델

* 교신저자: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02-2128-3064, Fax: 02-2128-3111, E-mail: jskim@sdu.ac.kr

부부치료가 가족치료와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만큼 가족이라는 상위 구조의 강조와 함께 부부치료 이론은 가족치료 안에서 출발하고 발전하여 왔다(Jacobson & Gurman, 1995). 1970년대에 행동치료가 가족치료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행동적 치료에서는 가족 성원들 간의 부정적인 행동 교환의 감소, 의사소통의 개선 및 문제해결 기술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가족 성원들이 서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재구축화 기법의 효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인지행동적 접근은 가족 및 부부 치료 내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인지행동적 이론은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부관계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악화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부부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는 장점이 있다. 인지행동적 부부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인지행동 부부치료는 부부치료 분야에서 주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Dattilio, 1993; Epstein & Baucom, 1993; Nichols & Schwartz, 2001).

일반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바라보는 인지행동적 관점은 내적 갈등이 인지, 행동, 및 정서적 요인들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감정과 행동은 인지의 영향을 받으며, 인지적 요인은 자각되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인지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서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은 오늘날 인지행동적 이론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부 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연구자들은 인지, 행동 및 정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행동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부부관계에서의 역기능을 매개한다고 가정한다(Dattilio & Padesky, 1990). 그들은 부부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관점과 일치하는 배우자의 행동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두기 때문에 개인 내부의 인지적 사건에 초점을 두어야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Dattilio 등, 1990; Dattilio, 1993; Dattilio, Epstein, & Baucom, 1998; Fincham & Beach, 1999). 부부관계나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측면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역기능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

부부문제를 인지행동적으로 접근하고자했던 선구자로는 Ellis를 들 수 있다. 체계이론적 접근이 가족치료에서 번성하였던 당시에 배우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배우자 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중재한다고 하는 ABC(Antecedents, Beliefs, Consequences) 선형 인과관계 모델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Ellis(1961)는 부부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은 결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지각하는 내용과 그러한 기대에 맞지 않는 결혼임을 들어 결혼에 대한 기대와 배우자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Beck(1988)은 부부문제를 인지모델에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결혼 이전 생활경험을 통해 발달한 배우자들의 기초 신념이 ‘결혼 생활과정에서의 경험을 입력하고 범주화하고 평가하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Beck,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 Dattilio 등, 1990; Dattilio 등, 1998). 그러한 기초 신념 혹은 인지도식은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이 어떠할지에 대한 가정과 또한 그것

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한 배우자의 행동은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과 연합된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면서 상황에 관련된 배우자의 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킨다. Beck의 모델은 인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의 관계에 가져오게 된 기존의 인지 도식과 부부가 상호작용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달한 관계에 대한 특정한 인지도식을 구분하였다. 부정적하거나 극단적인 도식에 기초해 있을 때 배우자들의 자동적 사고는 임의적이고 부정확한 귀인이나 기대를 반영하며 지각적 편파와 오류 추론의 인지과정의 왜곡을 보인다.

오랫동안 부부문제를 연구해 온 Baucom과 Epstein(1990)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인지의 유형으로 선택적 주의, 귀인, 기대, 가정 및 기준을 들었다. 이 다섯 가지 인지 유형이 부부관계에서의 만족감을 감소시키고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낳게 하는 잠재적 변인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가정과 기대는 비현실적이거나 왜곡되어 있을 때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자동적 사고, 인지적 왜곡 및 기저 가정 등의 Beck 모델과는 다소 다르게 다섯 가지 인지 유형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Baucom 등(1990)은 자신들의 설명 모델이 비현실적 사고에 기반한 인지 왜곡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Beck 모델의 개념화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지적 왜곡을 낳는 추론 과정에서의 오류도 Beck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내용들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째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요인, 둘째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과 사고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요인은 부부 관계에서 자신, 배우자, 부부의 상호 역할 및 관계 사건에 대한 신념으로서 부부의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활성화되는 인지도식의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인지도식은 배우자들이 결혼 생활의 많은 자극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자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추론의 규칙을 제공해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정한 기능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과 배우자 및 부부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이며 ‘부부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과 사고 요인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인지과정의 산물로서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의 특정 행동 및 부부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배우자 각자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즉 배우자의 행동과 부부 생활사건의 의미를 추론하고 그 의미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평가하며 부부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지과정이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 및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과 사고 과정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부부행동에 대한 설명은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상호인과성과 교환성을 지닌 일련의 과정이 전개된다고 하는 사회 학습 이론과 사회 교환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부 갈등과 부부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흔히 부부 불만족도와 관련 있는 부부의 행동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Kelly 등, 1983; Swenson, 1972; Peterson, 1979). 부부

의 행동과 부부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개 배우자 관찰 점검표 (Spouse Observation Checklist)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 자신들의 일상적인 부부행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주관적으로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배우자들의 상호작용을 감찰하는 시청각 도구를 통해 행동을 분석한다. 주관적인 평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갈등이 심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적고, 서로에게 화가 났을 때 떨어져있는 시간이 더 많으며, 부정적인 행동을 교환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갈등이 적은 부부들은 갈등이 많은 부부들에 비해 상대 배우자의 중성적인 행동도 긍정적인 쪽으로 잘 받아들이는 데 반해 부정적인 행동은 평정에서 잘 생략한다고 한다 (Christensen, Jacobson, & Babcock, 1991; Christensen & Nies, 1980; Jacobson & Margolin, 1979; Jacobson & Moore, 1981; Robinson & Price, 1980). 부부관계를 손상시키는 매우 충동적인 행동은 흔히 배우자의 행동과 부부 생활사건에 대한 추론과 해석 및 평가 결과로서 경험되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경우 지각과 사고 과정은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서는 그 자체로 배우자의 행동과 부부 생활사건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Weiss(1980)는 배우자의 행동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그 행동의 질 자체보다 배우자를 향한 전반적인 정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정서 우선(sentiment over-ride)의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부부문제에 있어서도 인지행동적 연구자들은 사고와 정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Dattilio 등, 1990).

부부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사건에서

촉발된다. 즉, 부정적인 부부 생활사건이 많을 수록 부부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관계의 사건만으로 부부의 불만족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인지도식의 측면으로서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배우자에 대한 신념, 부부관계에서의 상호 역할에 대한 신념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부부신념은 환경적인 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사실, 부부 관계에서의 신념과 부부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Epstein 등(1981)의 연구에서는 경직된 신념의 유지와 결혼 만족도 사이에 낮지만 역상관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Baucom, Epstein, Rankin 및 Burnett(1996) 등의 부부관계에 대한 기준과 부부 적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극단적인 기준을 지니는 것이 부부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Baucom 등(1996)은 이를 극단적인 기준을 지닌 부부들이 자신의 결혼관계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며 이런 요구가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한 관계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관계 초점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과 부부 불만족도와와의 상관을 조사한 김진숙과 권석만(2009a)의 연구에서는 한 배우자의 신념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경직되어 있느냐보다 두 배우자 사이의 신념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느냐가 부부 불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다. Baucom 등(1996)과 김진숙 등(2009a)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요인이 아닌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불일치 요인을 가지고 부부 불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림 1에서와 같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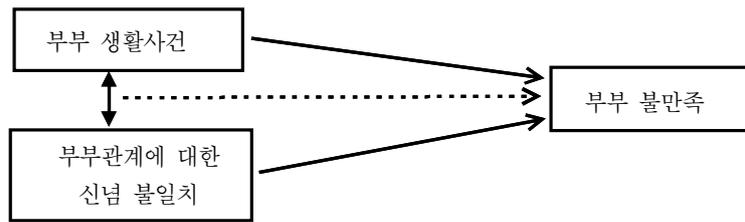


그림 1. 부부신념의 중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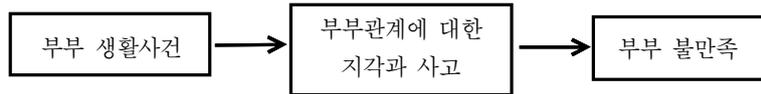


그림 2. 부부지각의 매개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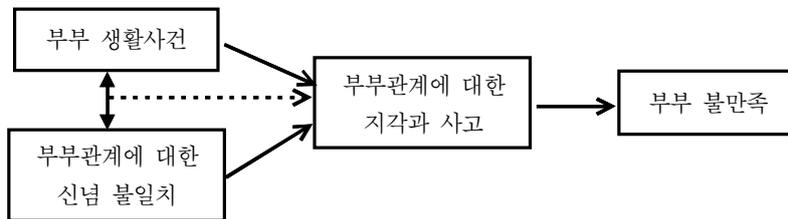


그림 3.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 인지모델

정적인 생활사건은 부부관계에 대한 부부신념 불일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처럼 인지과정으로서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의 행동 및 특정 부부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해당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과 사고 요인은 부부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부부 불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긍정적인 행동은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배우자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귀인하는 등의 지각 편파가 있다는 선행연구(Baucom 등, 1990; Bradbury & Fincham, 1990; Bradbury & Fincham, 1991; Bradbury, Fincham, Beach, & Nelson, 1996)의 결과처럼 이러한 지각과정에서

의 인지적 오류는 부부의 환경적 사건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리라 가정할 수 있다. 그림 3은 부부 사건이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부부 신념의 중재 역할과 부부 지각의 매개역할을 통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정적 부부사건은 부부신념 불일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지각은 이 과정을 매개하고 있다. 부정적인 부부사건이 촉발되면서 배우자 간 부부신념의 불일치 요인이 부부의 지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 내용과 일치하는 정서적 경험을 유발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상응하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지행동적 요인과 부부 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에서 개관한 인지행동적 관점에 근거하여 부부신념과 부부지각이 부부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인지행동적 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부부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러한 모델의 적절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부부사건이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부부신념 불일치 변인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심리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행동적 모델을 부부문제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념요인이 아닌 신념의 불일치 요인을 사용하였다.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배우자의 신념의 경직성이나 역기능성 보다 두 배우자 간의 신념의 괴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수용한 것이다(김진숙, 권석만, 2009a; Baucom, Epstein, Rankin, & Burnett, 1996). 둘째, 부정적 부부사건이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부부지각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부정적 부부지각의 매개효과가 있다면 부정적 부부사건과 부부지각이 상관성이 있으며 부정적 부부사건과 부부 불만족도가 상관을 나타내는 가운데 부부지각이 부부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다면, 부부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무의미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일반 지역사회 표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상담소나 치료센터 및 가정 법원을 방문하는 임상 표본을 일부(5쌍) 포함하여 기혼자 260명(130쌍)이 참여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224(112쌍)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참여자의 연령 평균은 남자가 40.8세, 여자가 38.6세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1.6년, 평균 자녀수는 1.6명, 가계 총 월 소득 평균은 235.5만원이었다.

측정도구

부부신념 척도(Marital Beliefs Scale: MBS)

김진숙 등(2009a)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내용으로 구성된 부부신념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첫째, 부부관계, 상대 배우자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상호 역할에 대한 가정과 기준 및 믿음이 문항에 포함될 것과 둘째, 문항이 전체 부부생활을 포괄할 것을 기준으로 60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analysis)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 '전통적 부부신념'과 '현대적 부부신념'의 2요인으로 이루어진 최종 30문항의 부부신념 척도가 구성되었다.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각각 .83과 .78이었고 반분 신뢰도는 각각 .82와 .70이었다. 척도 개발 시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부부신념 척도 상의 부부간 불일치 점수와 부부 불만족 점수 사이에 .28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한 배우자의 신

념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극단적인지 보다 두 배우자간의 신념이 달라서 양립 불가능할 때 부부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Marital Distress Perceptions Scale: MPS)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5점 척도상의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문항에 부부들이 자신의 부부관계나 부부 생활사건, 상대 배우자 및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해당하는 인지내용을 가급적 포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부부관계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지각과 사고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결혼 생활을 12가지 영역(경제, 애정표현, 가사일,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성관계, 자녀 양육, 배우자 가족, 직업, 친구관계, 종교, 여가)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 문항의 구성 절차로는 먼저 주변의 부부들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최근의 갈등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해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해 했던 생각을 적도록 하여 그 답변 내용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부문제에 상담소를 찾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갈등 상황에서 흔히 떠오르는 사고를 수집하였다. 예비문항 구성의 마지막 절차로서 이렇게 수집된 문항들을 최종적으로 상담 또는 임상 심리 전문가 5명에게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3명 이상의 전문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 각 생활영역별로 문항을 분류하여 12가지 생활영역에서 각각 5문항씩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60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부부불만족 지

각 척도가 완성되었다.

척도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60개 문항에 대해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analysis)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및 스크리 검사를 토대로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최종 48문항의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가 구성되었다. 1요인 ‘관여 불균형 지각’은 ‘남편은 친구관계가 지나치게 많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와 같이 주로 배우자가 가족이나 부부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생활중심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지각을 담고 있는 문항들이 많았다.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우자의 관여도가 낮아 자신이 관계에 더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불균형에 대한 지각이 내포되어 있었다. 2요인 ‘독선 비존중 지각’은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는 투로 말을 잘 한다’와 같이 배우자가 자신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주장이나 간섭이 지나치다고 하는 지각을 담고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애정 무관심 지각’의 3요인은 ‘남편은 나의 애정표현을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한다’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애정에 대한 의문, 애정적 무관심 및 애정 결핍의 지각을 담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4요인 ‘종교 불화 지각’은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이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배우자 무능 지각’의 5요인은 ‘남편이 가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인다’와 같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함을 표현하는 문항이 속해 있었다. 5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약 61.4%이었다. 부부지각의 총점은 자신의 부부관계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나타내는데, 척도의 각 요인과

부부 불만족 점수와 의 상관은 .61에서 .80 사이에서 유의미했으나 '종교 불화 지각' 요인은 유의미하지만 .27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 문항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서 스스로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로 표시한 것에서 연유함으로 추정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4에서 .94의 범위에 속했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GDS)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제작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이하 K-MSI)의 하위 척도로서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정혜 등(1999)은 Snyder(1997)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번안, 수정하여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를 제작하였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이하 GDS)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 주는 지표로 사용된다(권정혜, 채규만, 2002). K-MSI 제작 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었다. 척도가 '예-아니오'로 반응한 점수를 하위 척도들 간의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T 점수로 환산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보다 민감한 탐지가 요구되어 반응 방식을 5점 척도로 답하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6이었다.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Korean Marital Feeling Inventory: K-MFI)

O'Leary와 Arias(1983)의 17문항으로 구성된 긍정 감정 질문지(Positive Feeling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를 개발하였다(김진숙, 권석만, 2009b). O'Leary 등(1983)의 긍정 감정 질문지는 부부관계에서 자신 및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치료로 인한 변화에도 민감하여 부부치료 효과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부의 8개 문항은 질문 형식으로서 '최근 두 달 동안' 배우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를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 사이의 7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남편을 당신의 친구로 생각할 때, 친구로서의 남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등의 문항이 속해 있다. 후반부의 9개 문항은 역시 동일한 7점 척도이지만 진술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편과 둘이서만 있는 것은 나에게 ('매우 부정적인'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이의 7점 척도) 느낌을 준다'의 문항 형식이다. 개발 결과 단일요인으로서 내적 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반분 신뢰도는 .9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Korean Marital Behaviors Scale: K-MBHS)

Broderick(1981)이 제작한 부부 일일활동 점검표(Daily Checklist of Marital Activities: DCMA)를 본 연구자가 수정, 번안하여 총 35문항의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결혼생활 영역의 12개 범주에서 표집된 부부의 일상적 행동으로 구성된 109문항의 원 척도를 우리 문화에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문

항들을 제외하면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개 내용 범주가 골고루 그리고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원 척도가 2주에 걸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적 행동의 발생 유무를 매일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는 연구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회고적으로 ‘최근 두 달 동안 해당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의 빈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 방법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 이상에 해당하는 요인이 13개가 도출되었으나 스크리 검사를 통해 요인의 개수와 고유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요인 수 2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35개 문항의 척도가 구성되었다. 요인 1은 ‘귀가가 늦어질 경우 나는 아내에게 전화로 말해 주었다’와 같이 긍정적 부부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2는 ‘나는 남편의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를 비평했다’와 같은 부정적 부부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각각 .91과 .86, 반분 신뢰도는 각각 .91과 .84로 나타났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의 하위 척도 중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DS)와 요인과의 상관은 각각 -.59와 .39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배우자에게 긍정적 행동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일수록 부부 불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었으며 배우자에게 부정적 행동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일수록 부부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다소 있었다.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Major Marital Life Events Questionnaire: MMLEQ)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한 생활 사건을 나열한 질문지로서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경제, 건강, 죽음,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문제, 임신과 출산, 외도, 직업, 부부폭력, 성기능 곤란,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동거형태 변화, 자녀문제 등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28개 항목의 부부 사건을 나열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어났는지를 ‘예’, ‘아니오’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사건 목록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부사건이 아닌, 사건 자체로 부부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사건들로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실직’, ‘가족의 죽음’, ‘부모, 형제와의 갈등’, ‘갈등으로 인한 배우자와 별거’ 등이 해당한다. 질문지의 총점은 이러한 주요 생활사건이 일어난 개수에 해당한다. 분석 3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통한 분석을 위해 주요생활 사건 질문지의 생활 영역을 문항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부관계에 객관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부부관계에 의한 사건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 두 영역을 각각 객관적 사건과 관계사건으로 명명하고 각 총점을 구하여 부부 생활사건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절차

부부들로 이루어진 참여자들에게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고 위의 측정도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신념 척도,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 부부감정 척도 및 부부행동 척도는 문항내용은 동일하

되 성별에 따라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다. 주로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부모, 교회의 부부 모임, 대학원의 기혼자 학생, 대학의 상담기관에서 실시한 가족과 부부 문제와 관련된 대중강의 수강생 등을 상대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자가 직접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심리학과 대학원생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숙지를 하도록 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지시사항 중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상의하지 말 것과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현장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집에 가져가서 해오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에게 별도의 사례는 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

부부신념 척도 점수는 배우자간 부부신념의 불일치를 계산하기 위해 부부 점수 차이의 절댓값을 구하여 부부신념 불일치 점수로 사용하였다. 즉 배우자간 부부신념의 불일치 점수를 취한 것인데 이는 선행연구(김진숙 등, 2009a; Baucom 등, 1996)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극단적인 형태로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부 불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며 배우자들 사이의 그러한 신념의 불일치가 부부 불만족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부감정 척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경우 점수가 낮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척도가 구성되어 있어 총점이 곧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각 문항의 응답을 역 채점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긍정적인 감정이 적다는 것이 곧 부정적인 감정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본 척도가 평정 척도 상에서 ‘매우 부정적인’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이에서 응답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척도에서의 낮은 점수는 곧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부행동 척도에서도 긍정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역 채점하여 부부행동 척도의 총점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부정적 행동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는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와 같은 결혼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문항과 함께 ‘우리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와 같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섞여 있다. 따라서 후자를 역채점하여 척도의 총점이 부부 불만족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의 총점은 부부관계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28개의 사건 중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의 총 개수에 해당한다.

얻어진 자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1에서는 각 인지적 변인과 부부 불만족도의 상관을 조사하였고 분석 2에서는 중재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과 일반 선형이론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3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회귀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델 접근을 사용하였고 전체 모델을 검증하였다.

결 과

측정된 척도의 점수들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부 불만족도와

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성별에 따른 부부 불만족도의 차이는 t-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 불만족도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상관분석을 통해 볼 때, 전반적 불만족 척도와 연령($r = .18, p < .001$), 결혼기간($r = .16, p < .05$), 자녀 수($r = .14, p < .05$)는 유의미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부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관찰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부부 불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을 간략히 요약하면 주요 부부생활사건은 최근 6개월 간 남편과 아내에서 모두 1.4개의 사건을 기록하였다. 총 28개 사건 항목 중에서 평균 1.4개는 매우 낮은 사건 수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건의 목록이 ‘실직’이나 ‘가족의 죽음’ 혹은 ‘별거’ 등으로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사건 개수는 0개에서 6개, 아내의 사건 개수는 0개에서 8개의 범위를

보였지만 평균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부신념 척도는 선행연구의 개관 및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불일치 점수를 구하였다. 부부 쌍 자료에서 남편과 아내의 점수 차이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평균 42.1 점은 7점 척도의 부부신념 척도 모든 문항에서 평균 약 1.4 점의 불일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는 평균 점수로 볼 때 5점 척도 상에서 남편은 약 1.3점, 아내는 약 1.5점의 부정적 지각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표준편차로 미루어 볼 때 부부에 따른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부부감정 척도의 점수 평균은 남편이 7점 척도의 긍정 감정 질문지 상에서 각 문항 5.8점, 아내의 경우 5.6점에 해당하고 있어 긍정적인 경향의 감정을 보고하고 있다. 부부감정 척도의 원 개발자의 연구에서 남성 평균이 100.5, 여성 평균이 104.3점 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남성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원척도의 피험자보다 약간 낮은 긍정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부부행

표 1.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평균 및 표준편차 ^a					
	전체		남편		아내	
주요부부생활사건	1.4	(1.4)	1.4	(1.4)	1.4	(1.5)
부부신념척도-불일치	42.1	(10.7)	42.1	(10.7)	42.1	(10.7)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	67.2	(21.2)	64.2	(17.2)	70.1	(23.5)
한국판부부감정척도	97.9	(14.5)	100.5	(13.0)	95.3	(15.4)
한국판부부행동척도						
긍정행동	57.1	(13.4)	59.6	(13.4)	54.6	(13.9)
부정행동	24.9	(6.8)	24.4	(6.6)	25.3	(7.2)
전반적부부불만족척도	42.4	(14.4)	39.2	(12.6)	45.7	(15.3)

a 표준편차는 ()안에 제시

동 척도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긍정 행동의 빈도가 다소 높았으며 부정 행동에 있어서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는 5점 척도 상에서 남편의 불만족 점수가 평균 1.8점, 아내의 불만족 점수가 평균 2.1점으로서 아내가 남편보다 불만족 점수가 높았지만 원칙도 개발자와 다른 응답 체계를 사용하여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분석 1: 인지행동적 요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의 상관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인지행동적 요인들과 부부 불만족도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적인 주요 생활사건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33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부부감정과 부정적 부부행동과의 상관도 낮지만 유의미하였다. 즉 부부

관계에서 주요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부부일수록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그런 부부들이 부정적 부부감정을 더 경험하고 부정적 부부행동을 더 방출하는 경향을 다소 보였다. (2) 부부 간 부부신념 불일치 점수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의 상관 역시 .30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부신념 불일치는 부정적 부부감정과 부정적 부부행동과도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부관계, 상대 배우자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상호 역할에 대한 믿음이 부부 사이에 불일치할수록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런 부부들이 부정적 부부감정을 더 경험하고 부정적 부부행동을 더 방출하는 경향을 다소 나타냈다. (3) 부정적 부부지각과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의 상관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부지각과 부정적 부부감정 및 부정적 부부행동과의 상관도 유의미하였으며 상관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자신의 부부관계나 부부 관계에서의 사건, 배우자 및 배우자의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112쌍)

	주요부부 생활사건	부부신념척도 - 불일치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	한국판 부부감정척도	한국판 부부행동척도
부부신념척도 - 불일치	.21**				
부부불만족 지각척도	.32**	.37**			
한국판 부부감정척도	.21**	.22**	.62**		
한국판 부부행동척도	.20**	.17*	.49**	.67**	
전반적 부부불만족척도	.33**	.30**	.72**	.76**	.63**

* p<.05, ** p<.01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부부일수록 높은 부부 불만족도를 보였으며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고 배우자에게 부정적 행동을 방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4) 부정적 부부감정 및 부정적 부부행동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부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정적 행동을 더 많이 방출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부부 불만족도를 나타냈다.

분석 2: 부부신념의 중재효과 검증

가설 1의 부부신념의 불일치가 부정적 부부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부신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부부신념의 불일치 총점과 주요 부부 생활사건 총점을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서로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산출하였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으로서 주요 생활사건, 부부신념 불일치, 주요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석 결과 주요 생활사건의 설명 변량이 10.6%로 가장 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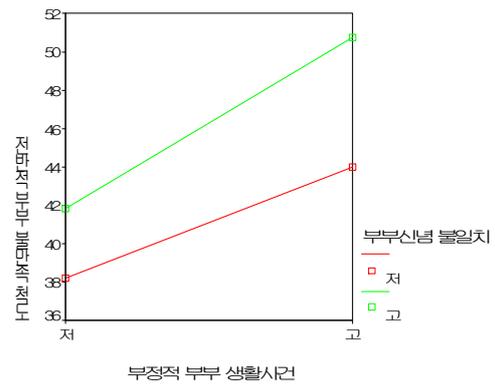


그림 4.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 그래프

으며 유의미하였다. 주요 생활사건의 설명변량을 제외한 부부신념 불일치의 설명변량은 6.4%로 역시 유의미하였다. 주요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은 1.5%의 유의미한 설명변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 고/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 3: 부정적 부부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부정적 부부지각이 부부사건과 부부 불만족

표 3. 주요 부부 생활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 및 두 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ΔR ²	F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	1. 주요 부부 생활사건	.106	.106	26.060***
	2. 부부신념 불일치	.169	.064	22.341***
	3. 주요 부부 생활사건 X 부부신념 불일치	.185	.015	16.446**

** p<.01, *** p<.001

표 4. 부부신념 불일치와 부부 불만족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부부지각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R2	F
주요 부부 생활사건	부부 불만족도	.106		26.060***
주요 부부 생활사건	부정적 부부지각	.111		27.463***
1. 부정적 부부지각	부부 불만족도	.554		273.029***
2. 주요 부부 생활사건		.561	.007	3.369

*** p<.001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방법과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표 4와 그림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회귀분석 결과 1) 부부 사건은 부부 불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 부부 사건은 부정적 부부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 부정적 부부지각은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부정적인 부부

지각이 부부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부부 사건의 효과를 조사하였을 때, 설명변량 R²이 10.6%에서 0.7%로 감소하였으며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부부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부지각이 부부 사건과 부부 불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매개가설이 잠정적으로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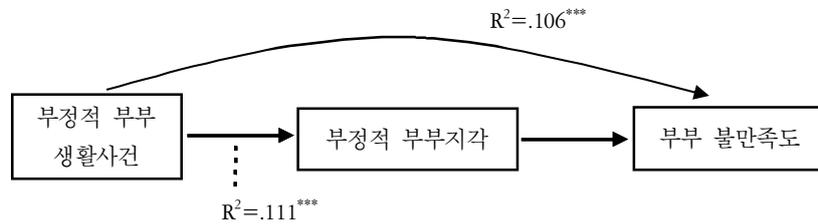


그림 5. 부부지각의 매개효과 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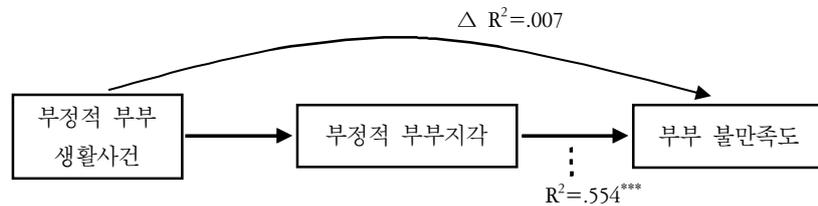


그림 6. 부부지각의 매개효과 분석 2

둘째,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Structural Equation Model)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A-MOS Version 5.0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부부지각의 매개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검증 을 위해서 각 이론변인들의 하위점수를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부부 사건의 경우 주요 생활 사건 질문지를 통해 구분한 객관적 사건 과 관계사건의 각 총점을 부부 생활사건의 측 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부부지각 변인은 5개 의 하위 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부 부 불만족 변인은 세 가지 측정변인을 사용하 였는데, 이 세 가지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총점,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의 총점,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의 총점이었다. 한국판 부부감 정 척도와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는 부정적인 감정 및 행동을 나타내도록 총점을 구하여 적 용하였다. 부부신념 불일치 변인을 사용한 모 델에서는 부부신념 척도의 두 가지 요인 즉, 전통적 신념 및 현대적 신념의 불일치 총점을

각기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에 따른 매개모형을 그림 7에 제시 하였다. 부부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 변인이 부부지각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부부 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에 대한 모 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적합도 평가를 위 해서는 홍세희(2000)의 논문에서 권한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r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합치들은 .90이 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 미만이면 합당한 모 형, .10 미만이면 괜찮은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적합도 검증 결과, $\chi^2(df=12)=51.512, p =.001$ 이었으나 TLI=.884, CFI=.926, RMSEA=.086으로 나타나 모델의 부합도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부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부정적 부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부정적 부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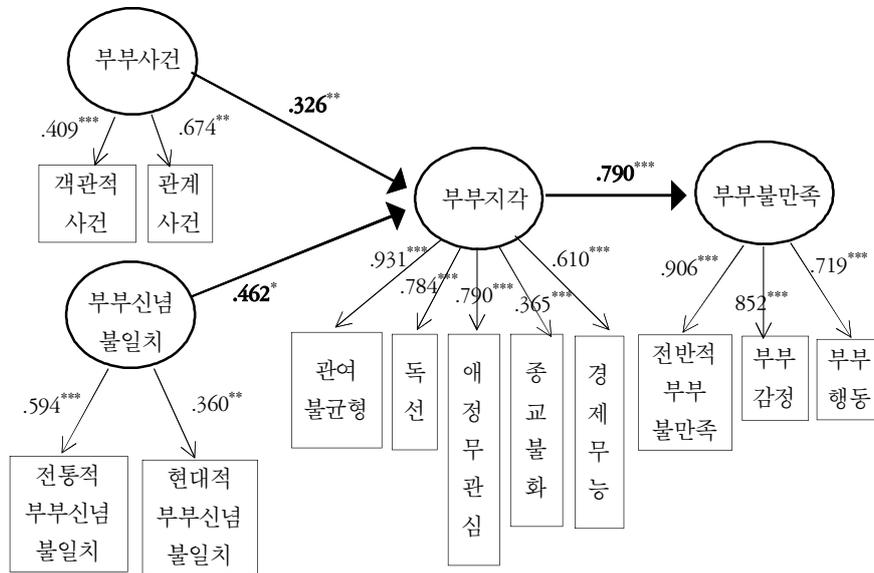


그림 7.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 인지행동 모델(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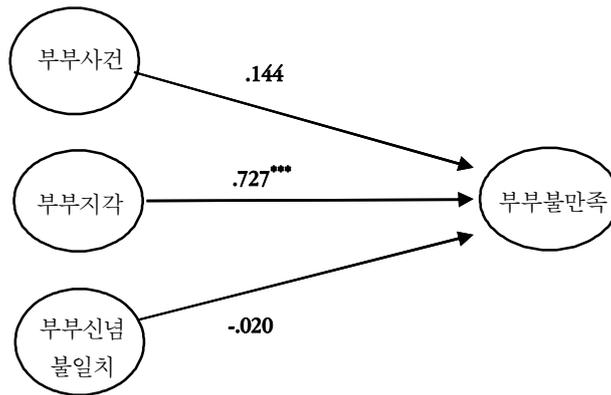


그림 8. 대안모델 1(비매개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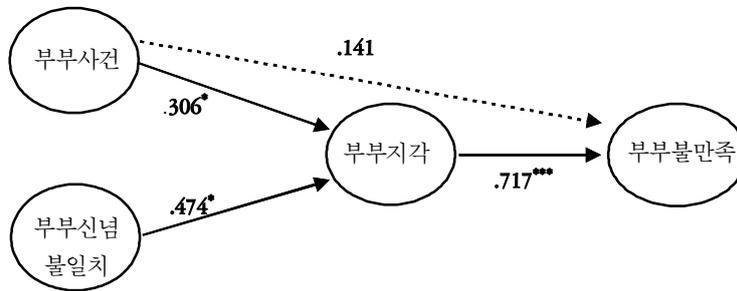


그림 9. 대안모델 2

각이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매개모델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절하고 안정적인 모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론 변인들 간에 예상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정하여 대안모델을 구성하였다. 대안모델 1은 그림 8과 같이 부부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 및 부부지각이 병렬적으로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적합도 지수에서 $TLI=.880$, $CFI=.926$, $RMSEA=.087$ 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부부 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부부신념 불일치가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안모델 2는 그림 9에서처럼 매개모델의 변인 간 관계에서 부부 사건이 직접적으로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대안모델 2의 부합도 검증 결과, $TLI=.884$, $CFI=.927$, $RMSEA=.086$ 으로 나타났으나 새롭게 추가한 부부 사건에서 부부 불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안모델 3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매개모델의 변인 간 관계에 부부신념 불일치가 직접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대안모델 3의 모델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TLI=.880$, $CFI=.925$, $RMSEA=.087$ 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새롭게 추가한 부부신념 불일치에서 부부 불만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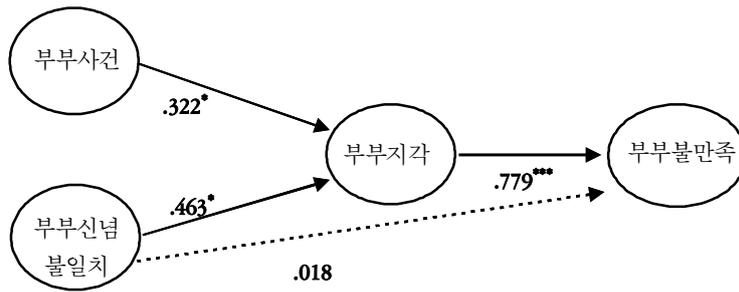


그림 10. 대안모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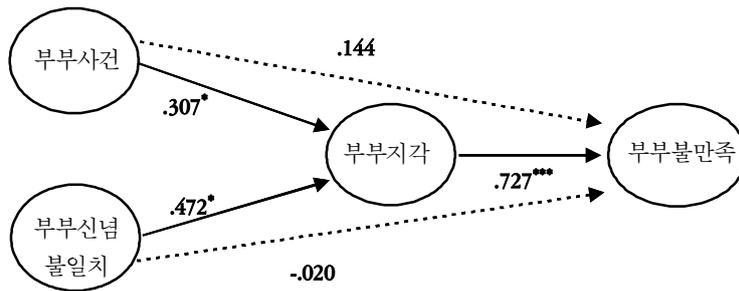


그림 11. 대안모델 4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안모델 4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매개모델의 변인 간 관계에 부부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각각 부부 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경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모델 부합도 검증 결과, $TLI=.880$, $CFI=.926$, $RMSEA=.087$ 이었으며 이 경우에도 부부 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부부신념 불일치가 부부 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경로로 구성된 모델은 매개모델과 대안모델 1이었으며 구조 방정식 모델 상의 수치로 볼 때 상대적인 적합도가 높았던 것은 매개모델과 대안모델 2이었다. 그러나 매개모델을 제외한 대안모델들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계수들이 한개 이상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경로계수와 부합치를 고려

할 때 매개모델이 가장 합당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모델 검증에서 부부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각각 부부지각으로 가는 경로를 구성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으나, 엄밀하게는 부부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 항을 구성하여 상호작용이 부부지각으로 가는 경로를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잠재 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Robert & Ping, 1996). Robert 등(1996)은 가중치와 변량을 계산하는 수식을 제안하고 계산을 통해 상수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다른 방법을 제안하거나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델에서 상호작용 검증의 대안으로 부부

표 5. 부부지각에 미치는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 및 두 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ΔR ²	F
부정적 부부지각	1. 부부신념 불일치	.139	.139	35.550 ^{***}
	2. 주요 부부 생활사건	.198	.059	16.107 ^{***}
	3. 주요 부부 생활사건 X 부부신념 불일치	.232	.034	9.752 ^{**}

** p<.01, *** p<.001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 및 부부지각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즉 부부사건, 부부신념 불일치 그리고 새로 구성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단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부부지각에 대한 설명변량을 조사하였다.

부정적 부부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으로서 주요 생활사건, 부부신념 불일치, 주요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부부 불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는 주요 생활사건의 설명변량이 가장 컸던 것과 달리, 부부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부부신념 불일치 변인의 설명 변량이 13.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부부신념 불일치의 설명변량을 제외한 부부 생활사건의 설명변량은 5.9%이었다. 주요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은 3.4%의 유의미한 설명변량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두 변인의 효과를 배제하고 나서도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구조 방정식 모델 접근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매개모델이 모델 적합도 지수에서도 적절하고 각 경로의 계수도 모두 유의미하여 수집된 자료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부부지각의 매개효과와 주요 부부생활 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의 상호작용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부정적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부정적 부부지각에 영향을 주고 부부지각은 위의 두 변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인지행동적 모델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세 가지의 유형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1의 인지행동적 요인들과 부부 불만족도와 상관 조사에서 주요 부부 생활사건, 부부신념 불일치, 부정적 부부지각, 부정적 부부감정, 부정적 부부행동 변인 모두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분석 2의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부정적인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에서 부부신념 불일치는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

나 주요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냈지만 그 설명변량이 1.5%로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주요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서로 상관이 되어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두 변인들의 설명 변량을 모두 제외하고 난 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측정하게 되어있는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에서 다소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 3에서 회귀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해 본 결과,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에서 부정적 부부지각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 불일치가 부정적 부부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부부지각이 이 두 변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를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매개모델의 경로계수들이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합당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안된 인지행동적 모델은 부부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시한 연구 결과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에 응답한 반응을 빈도분석 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부정적 사건은 ‘부모 형제와의 갈등’ 사건이었다. 그 외 남편과 아내의 15% 이상이 해당된다고 표기한 사건은 ‘빚보증이나 카드 빚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가족의 질병’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에는 여기에 ‘시가와의 갈등’이 추가되었으며 응답자의 20%가 표시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부정적 사건이었다. 여전히 유교적 전통의 문화적 영

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대표적인 부정적 주요생활사건으로 나타난 ‘부모 형제와의 갈등’ 사건과 많은 아내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가와의 갈등’ 사건은 부부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연구 결과들을 국내의 부부에게 적용할 때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 생활사건과 부부신념의 불일치 및 부부지각이 부부 불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부부신념의 중재 및 부부지각의 매개모델을 평가하였으며 부부관계에서의 이러한 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부부문제를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있으나(권정혜, 채규만, 2000; 이창숙, 유영주, 1998; 이현숙, 1999) 포괄적인 모델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시도는 본 연구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지행동적 요인을 평가하는 척도의 개발을 통해 모델의 검증뿐만 아니라 복잡한 부부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행동적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는 치료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인지적 요인의 매개 역할과 중재 역할을 검증하였는바, 부부가 한 개인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서의 양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방향적인 관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고 하는 점이다. 부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인지도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고과정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 개인 내에서의 모델에서 나아가 양 방향을 모두 포괄하는 모델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연구자들은(Arias & Beach, 1987; Fincham, Bradbury, & Beach, 1990) 배우자의 인지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개인이 표준화된 질문지상에서 보고하는 의식적인 인지를 타진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인이 기꺼이 보고하지 않는 이면의 인지과정과 구조를 평가하는 방법들 예컨대 개념 자극이 제시될 때의 반응시간이라든지 인지도식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단어들에 대한 기억 등의 방법들은 아직 부부 영역에서 적절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구조 및 내용으로서 부부신념과 부부지각 요인을 평가하였지만 위의 지적처럼 의식적인 차원의 인지에 대한 평가라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부부문제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모델을 보다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 이면의 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각 부부에게 문제가 되는 영역을 선택하여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 유용하며, 갈등이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논쟁을 적절하게 점화시키는 과정이 인지 평가에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있다(O'Leary, 1987).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모델 구성을 위해 부부신념을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평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부부 갈등영역을 선정하여 점화자극을 주는 절차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인지적 요인의 내용을 표집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부부신념 척도, 부부불만족 지각 척도 및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로서 아직 척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주요 부부생활사건 질문지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화된 절차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표본과 소수이지만 임상 표본이 혼재되어 있으나 임상 표본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별도의 통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서 임상 표본이 지역사회 표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보다 동질적인 표본으로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임상표본의 사례수를 더 확충하여 지역사회 표본과 임상 표본에서 제안된 인지행동적 모델이 동일하게 설명되는지,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도구 상에서 각 문항들이 지역사회 표본과 임상 표본을 구별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의 개발에 유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미비한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부부행동 척도는 긍정적 부부행동과 부정적 부부행동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델 검증을 위해 부부행동 척도의 총점이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긍정적 행동의 역이 곧 부정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측정도구에서 언급했듯이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DS)와 긍정적 부부행동 요인은 -.59, 부정적 부부행동 요인은 .39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표 2에 도시한 것처럼 부정행동의 총점으로 환산한 부부행동 척도와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 사이의 .63의 상관은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부정적 지각과 부부행동 사이의 상호성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의 지각과 행동 사이에는 부부 불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 연구들(Christensen, Jacobson, & Babcock, 1991; Christensen & Nies, 1980; Jacobson & Margolin, 1979; Jacobson & Moore, 1981; Robinson & Price, 1980)은 배우자 행동에 대한 지각에서의 편파가 존재하며 갈등이 심한 부부의 경우 더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이러한 지각에 따른 행동을 배우자에게 방출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배우자 행동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인 일상행동을 부부관계에서 나타낼 것이고 이러한 행동이 이번에는 상대 배우자의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상대 배우자 역시 부정적인 지각에 합당한 부정적인 행동을 관계에서 표출하기가 쉬울 것이다.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이 궁극적으로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 배우자의 입장에서의 모델 검증에서 나아가 모델의 순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부정적 지각과 부부행동 사이의 상호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통합적인 모델의 구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양적인 통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검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부부 사례에 대한 자료들이 합산됨으로써 자료에 담긴 개별 부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살펴보기 어렵다. 한국 부부의 개별 부부문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모델의 이론적

검증에서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부부들의 실제 문제를 설명할 때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를 추후에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권정혜, 채규만 (2002). 결혼만족도 검사; 사용자 매뉴얼. 서울: 학지사.
- 김진숙, 권석만 (2009a).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59-473.
- 김진숙, 권석만 (2009b).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의 개발. 한국임상심리학회 동계연수회 포스터발표 초록집. 7-8.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 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Baucom과 Epstein의 인지 - 행동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이현숙. (1999). 인지 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7(1), 5-2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Arias, I., & Beach, S. R. H. (1987).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in the context of marriage. In K. D. O'Leary (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pp.109-137).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aucom, D. H., Epstein, N., Rankin, L. A., & Burnett, C. K. (1996). Assessing relationship standards: The Inventory of Specific Relationship Standar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72-88.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1). A contextual model for advancing the study of marital interaction. In G. J. O. Fletcher and F. D. Fincham (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pp.127-147). Hillsdale, NJ: Erlbaum.
- Bradbury, T. N., Fincham, F. D., Beach, S. R. H., & Nelson, G. M.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69-576.
- Broderick, J. E. (1981). A method for derivation of areas for assessment in marital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25-34.
- Carter, B., & McGoldrick, M. (1988). *Overview: The change family life cycle-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In B. Carter & M. Carter (Eds.),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2nd ed.) (pp.3-28), Boston: Allyn & Bacon.
- Christensen, A., Jacobson, M. S., & Babcock, J. (1991).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Marital therapy*, 2nd edn.. New York: Guilford.
- Christensen, A., & Nies, D. C. (1980). The Spouse Observation Checklist: Empirical analysis and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 69-79.
- Dattilio, F. M. (1993). Cognitive techniques with couples and families. *The Family Journal*, 1, 51-56.
- Dattilio, F. M. (1994). Families in crisis. In F. M. Dattilio & A. Freeman (Eds.), *Cognitive-behavioral strategies in crisis intervention* (pp.278-301). New York: Guilford Press.
- Dattilio, F. M., Epstein, N., & Baucom, D. H. (1998). An Introduction to Cognitive-Behavioral Therapy with Couples and Families. In F. M. Dattilio (Ed.), *Case Studi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Systemic & Cognitive Perspectives*(pp.1-36). New York: Guilford Press.
- Dattilio, F. M., & Padesky, C. A. (1990).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Ellis, A., & Harper, R. A. (1961). *A Guide to Successful Marriage*. California: Wilshire Book Company
- Epstein, N., & Baucom, D. H. (1993). Cognitive factors in marital disturbance. In K. S.

- Dobson & P. C. Kendall (Eds.), *Psychology and cognition*(pp.351-385). San Diego: Academic Press.
- Fincham, F. D., & Beach, S. R. H. (1999). Conflict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Coup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47-77.
- Fincham, F. D., Bradbury, R. N., & Beach, S. R. H. (1990). To arrive where we began: A reappraisal of cognition in marriage and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167-184.
- Jacobson, N. S., & Gurman, A. S. (1995).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ew York: Guilford.
- Jacobson, M.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Jacobson, N. S., & Moore, D. (1981). spouses as observers of the events in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269-277.
- Kelly, H. H., Berscheid, E., Christensen, A., Harvey, J. H., Huston, T. L., Levinger, G., McClintocj, E., Peplau, L. A., & Peterson, D. R. (1983).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W. H. Freeman.
- Margolin, G., Christensen, A., & John, R. S. (1996). The continuance and spillover of everyday tension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famil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304-321.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Allyn & Bacon.
- O'Leary, K. D. (1987).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 An Integration for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Jersey: Hillsdale.
- O'Leary, K. D., & Arias, I. (1983). The influence of marital therapy on sexu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9, 171-181.
- Peterson, D. R. (1979). Assess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means of interaction records. *Behavioral Assessment*, 1, 221-236.
- Robert, A., & Ping, Jr.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 166-175.
- Robinson, E. A., & Price, M. G. (1980). Pleasurable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117-118.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Swenson, C. H. (1972). The behavior of love. In H. A. Otto (Ed.), *Love today: A new exploration*(pp.86-100). New York: Associated Press.
- Weiss, R. L. (1980). Strategic behavioral marital therapy: Toward a model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J. 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1, 229-271). Greenwich, CN: JAI Press.

투 고 일 : 2010. 01. 10.
 2 차접수일 : 2010. 04. 05.
 게재확정일 : 2010. 04. 12.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nd Marital Dissatisfaction

Jin Sook Kim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ersity

Seok 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s the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marital problem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ppropriate cognitive-behavioral model was constructed and was test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lso, we evalu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belief discrepan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marital perception on how major marital life events affect marital dissatisfaction.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ssessment scale and general marital dissatisfaction assessment scale were administered to 130 married couples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behavioral factors (e.g., major marital life events, marital belief discrepancy, negative marital perception, negative marital emotion, and negative marital behavior) and general marital dissatisfaction. We also foun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marital belief discrepancy and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marital perception on the connection between major marital life events and marital dissatisfaction. Finally, the mediation model showed appropriate goodness of fit compared to alternative models. We conclude that the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suggested by the present study is a potential explanation for Korean marital problems. Clinical implicat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marital belief discrepancy, marital perception, marital emotion, marital behavior, marital dissatisfaction, cognitive-behavioral model